

광주국세청, 적극 행정으로 지역기업 시름 덜어준다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만나 현장 간담회 세정지원 약속

경영난 겪는 지역·업종 선제 발굴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계적 장기 불황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세정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 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대불혁신지원센터)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대불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유인숙) 기업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기업승계 지원

제도 등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 경영 시 유의 사항 등도 안내했다. 특히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유인숙 회장은 "최근 조선업이 회복세에 들어서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방국세청 박광종 청장은 "우선 대불산단 기업인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에서도 조선업 특화단지의 중심에서 지역경제를 지원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업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청장은 또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에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세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 서부지사 내에 별도 상담창구를 마련해 법인세 감면과 기업승계 관련 맞춤형 컨설팅 등도 진행했다.

대불국가산단은 국내 조선업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지역 내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으며, 최근 인건비 부담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고충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대불혁신지원센터)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뒤 참석 기업들과 '위기 극복'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PEC 앞두고 민간외교 집중

캐나다 APEC 기업인자문위 참석
글로벌 통상 질서 협력 등 논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글로벌 경제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이기도 한 조 부회장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에 참석해 민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부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ABAC 위원 3인을 포함한 APEC 역내 20여 명의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ABAC 회의에 참여해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에 따른 아태 지역 경제와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며, 올해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하는 APEC 회의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23~2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를 주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기업계 역시 ABAC 회의 등으로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올 하반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가 APEC 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ABAC 위원들은 올해 호주와 캐나다에 이어

베트남(3차), 그리고 한국(4차)에서 정례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각 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ABAC-APEC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건의문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ABAC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MZ세대 핫플 수완지구 직장인 회식장소 1위 충장로

광주지역 MZ 세대가 많이 찾는 곳은 수완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이 회식 장소로 꼽은 곳은 충장로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 상권 분석에 따르면 유동 인구 기준 MZ 세대 약속 장소 1위는 수완지구 일대였다.

수완지구대 인근 상권은 10대·20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았다. 이곳을 찾는 10대·20대 유동 인구는 일평균 9673명에 달하고 학원(106점포)·식당(58점포)·카페(58점포)가 많았다.

다음 인기 상권은 수완지구 명진고등학교와 은빛초등학교 일대로, 10대·20대가 이용하는 카페와 학원, 요리주점 등이 많았다.

수완지구에는 이른바 'SNS 감성' 카페와 음식점이 몰려 있어 MZ 세대의 발길을 사로잡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 인기 많은 상권은 상무지구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정류장 일대였다. 오치동 서산초등학교 상권 4위, 금호동 서구문화원 상권이 5위 등이 뒤따랐다.

직장인 회식 장소로 인기가 가장 높은 곳은 충장로 금남로4가역 1번 출구 일대였다. 이곳은 30~50대 직장인이 많고 저녁 시간대 매출이 많았다. 인근 직장인 수는 2만9780명에 이르고 저녁 시간대 매출액은 월 10억원을 기록했다.

회식 장소 2위는 '시리단길'로 불리는 첨단지구가 있는 첨단지구대 일대 상권이다. 이곳은 유흥주점 270점포, 백반 한정식 255점포, 요리주점 192점포가 밀집해 있다. 3~5위는 관공서·회사 등이 모여 있는 상무지구 한국수자원공사 정류장, 차평동, 상무1동 우체국 상권으로 조사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경기 침체로 은행도 '비상'...연체율 '껑충'

4대은행 부실채권 석달새 1.7조 ↑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 등으로 1년 가까이 정체 또는 뒷걸음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가계와 기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7일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분기 실적과 함께 공개한 팩트북 등에 따르면 1분기 말(3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 단순 평균은 0.41%로 직전 분기인 작년 말(0.34%)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KB국민은행의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0.35%로 전분기보다 0.06%p 높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017년 1분기(0.51%)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고, 상승 폭(0.10%p)은 2016년 1분기(0.15%p) 이후 9년 만에 최대 기록이었다. 중소기업 연체율 오름폭(0.10%p)도 2015년 1분기(0.22%p)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컸다.

신한은행의 전체 연체율도 0.27%에서 0.34%로 0.07%p 올랐다. 중소기업(0.49%)과 전체 기업(0.37%)의 연체율 상승 폭이 각 0.12%p,

0.08%p로 두드러졌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17년 2분기(0.52%)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0.29%)은 2019년 3분기(0.29%) 이후 최고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4년 3분기(0.31%) 수준에 육박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의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팩트북을 공개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NPL은 1분기 말 현재 총 12조615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9조1270억원)보다 27.7%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NPL은 지난해 2분기 말(10조4800억원) 처음 1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 1분기 석달 사이에만 한꺼번에 1조7440억원이나 불었다.

5대 은행 1분기 말 가계·기업·전체 NPL 비율(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단순 평균 기준으로 한 분기만에 0.04%p, 0.07%p, 0.05%p 각각 올랐다.

은행권은 이런 부실채권 급증과 연체율 상승의 배경으로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등을 지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훈부·한경협·KB금융그룹 광복 80주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리모델링·경영 컨설팅 등 제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가보훈부 및 KB금융그룹, 한국해비타트, 광복회와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명품가게(명예를 품은 가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보훈 소상공인의 가게와 부대 시설에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연중 분야별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명품가게 현판을 선물해 매출과 자긍심을 높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명품가게 프로젝트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1~23일 한경협 CSV팀이나 전국 17곳의 광복회 지회(5월 7~16일 개별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주관 기관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경협은 "광복 이후 80년간 우리 사회가 눈부

시게 발전한 것은 독립 영웅들 덕분이며, 이들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최악의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응원도 이번 프로젝트에 담긴 의미"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로또복권 (제 116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12	24	26	39	42	2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852,735,813			10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2,451,426			112
3	5개 숫자일치		1,465,648			3,244
4	4개 숫자일치		50,000			160,483
5	3개 숫자일치		5,000			2,668,194



광주신세계 럭셔리 브랜드 '코치' 팝업스토어. 광주신세계가 본관 2층에 뉴욕 익스프레스브 럭셔리 브랜드 '코치(COACH)'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이번 팝업은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코치가 국내 소비자외의 점점 확대를 위해 마련했으며, '태비백', '체인 태비백'을 비롯한 코치 2025 봄 컬렉션과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나 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승용차 담보대출 Wa자동차담보대출 출시

광주은행은 "지난 25일 'Wa자동차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Wa자동차담보대출은 본인 단독 소유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특히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대출 한도가 부족한 고객을 위해 마련된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이며, 자동차 담보를 통해 추가 대출 한도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존 신용대출 한도에, 본인 소유 차량의 시세를 기반으로 한 차량담보 한도를 더해 300만~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본인 여건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고객이 분할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신청은 광주Wa뱅크앱과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5월 황금연휴 해외 여행업계 들썩

침체 장기화에 소상공인은 울상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5월 첫째 주말인 3~4일부터 어린이날·석가탄신일(5일), 어린이날 대체휴일(6일)이 이어지면서 나흘간의 연휴가 생기고, 직장인은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근로자의날(1일)부터 연세(6일)를 쉴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출발하는 패키지 해외여행 예약인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

지역별 예약 비중을 보면 동남아가 37%로 가장 많았고, 중국(26%), 일본(22%) 등 근거리 여행이 많았다.

모두투어 역시 같은 기간 출발하는 패키지 해외여행 예약인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늘었다. 지역별 비중은 근거리인 동남아가 42%로 가장 높았고 중국 20%, 일본 20%, 유럽 10% 수준이다.

노랑풍선을 통해 출발하는 패키지 해외여행 예약인원도 30%가량 늘었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주요 여행지는 대부분의 좌석이 이미 소진된 상태"라면서 "연휴 막바지에 출발하는 일정의 상품은 일부 좌석이 남아 있어 잔여 좌석을 중심으로 신규 예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긴 연휴에 여행자들의 특수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소상공인들의 경기는 살아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긴 연휴 여파로 사무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장사가 더 위축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나온다.

연휴 내내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는 연휴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오피스 상권 인근 상인들은 매출이 반토막이 난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려면 소비 쿠폰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